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646. 832. 7397

212. 736. 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eoulosb@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웅희 루카 (작은형제회 :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전교수녀 : 안혜진 마리루시 (뫼팅포교베네딕도회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지연 안나레지나 917. 282. 1662

제1독서 | 예레 38,4-6.8-10

화답송 | 시편 40(39),2ㄱㄴ.2ㄷ-3.4.18(◎ 14ㄴ)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굶어보셨네. ◎
○ 외치는 내 소리 들어 주셨네. 나를 멸망의 구렁에서, 더러운 수렁에서 꺼내 주셨네. 반석 위에 내 발을 세워 주시고, 발걸음도 든든하게 잡아 주셨네. ◎

제2독서 | 히브 12,1-4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은 내 목 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알렐루야.

복음 | 루카 12,49-53

영성체송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성가 | 입당 421 예물준비 340(511)
영성체 160(159) 파견 436

신앙고백: 사도신경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밀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미사 봉헌

연미사 지향

- 황서진 소피아
- 박송남 프란치스코

생미사 지향

- 안선정 마리아나
- 유병호, 조진숙 비타
- 김선희 마리아, 이경재 라파엘, 이성철 미카엘 건강을 위해
- 김현용 니콜라오
- 지군자, 진정은 영육 건강을 위해
- 황예슬 엘리자베스
- 전형용 요아킴 가족
- 박혜화 도미니카 영육간의 건강 위하여
- 박철 스테파노, 박아영 올리바
- 김흥기 안드레아
- 오정민 세레자 요한, 유정원 - 결혼 축하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체 분배	복사
8월 17일	김유화	민완준	이경자	류유리	유정옥	조성윤 김수현
8월 24일	조소연	이태주	민재인	장민우	이영혜	이예진 한서희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면담 후 결정	*신청: Sr.마리루시
유아 세례	면담 후 결정	*신청: Sr.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 Sr.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 Sr.마리루시
견진 교리	방문교리(환자/어르신)*신청: Sr.마리루시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오신 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새 교우분 맞이

새로 오신 교우분들을 위해 본당에서 <새신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사 후 다미아노 홀 친교모임에서 만남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장소: 아랫성당(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646. 685. 7788 봉사자 원혜미 엘리사벳

2026년 달력 광고 신청

2026년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달력을 제작합니다. 사업체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바랍니다.

신청 마감 및 비용: 8/24(주일), \$ 150

신청/문의: 646. 832. 7397 (Sr. 마리루시)

*주보의 기존 광고는 올해 말까지 지속됩니다. 2026년 주보 광고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11월 초까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성탄 세례반 모집

2025년 성탄에 세례 받으실 예비신자분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 2025년 8월 말까지

교리반 시간: 목요일반(7:30 PM ~) 주일반(1:30 PM ~)

신청 방식: 신청서 작성/(양식신청 seoulsb@gmail.com)

신청/문의: 646. 832. 7397 (Sr. 마리루시)

성령기도회 찬양미사

일시: 8월 19일(화), 6:30 PM - 8:30 PM

장소: 산다미아노홀

하느님 찬양의 자리에 많은 교우분들을 초대합니다.

청년여름캠프

주제: "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필리2, 2)

일시: 8월 22일(금) - 8월 24일(일) 2박 3일

장소: PORT MURRAY, NJ

참가비: \$250

신청/문의: 929. 660. 4456(청년회장 진현종 빈첸시오)

청년성서모임(주관: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과정: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OT 및 첫 모임: 9월 14일(일) 12시(장소: 다미아노홀)

대상: 세례 받은 청년

신청마감: 현재 접수중 ~ 9월 7일(일)까지

문의: 대표봉사자 유선옥 베로니카

(카톡: sunwouk, 714. 809. 9874)



2025년 사목회 & 각 단체장 워크숍

일시: 9월 20일(토) 10:30AM-5:00PM(점심 1시간)

장소: 산 다미아노 홀

참가자: 사목회장, 부회장, 서기, 재무분과장, 전례분과장, 교육분과장, 청년분과장, 선교분과장, 사회복지분과장, 재무분과위원, 청년부분과장, 사회복지분과위원, 제대회장, 성가단장, 복사단장, 학부모회장, 예수성가정회장, 주일학교 교감, 청년회장, 꾸리아 단장, 성소후원회(양업회)장, 성령기도회장, 울뜨레야 간사, 신명팀 단장, M.E. 대표부부, 연령회장, 요셉회장, 성모회장, 전교수녀 이상 약 30명(그외 관심 있는 분 참여 가능)

2025 레지오 마리애

“레지오마리애”는 성모님과 함께 기도와 봉사로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입니다.

구세주의모후Pr. 회합: 주일 8am 단장: 347. 633. 3767

희망의 모후Pr. 회합: 목요 6pm 단장: 347. 514. 5783

우리즐거움의원천Pr. 회합: 주일 11:10am 단장: 929. 208. 5147

대상: 세례 받은 남녀 교우(어른, 청·장년)

뉴욕/뉴저지 제9차 선택 주말

일시: 8월 30일(토) 10:00AM - 9월 1일(월)3:00 PM.

대상자: 1987-2003년생 청년 미혼남녀(한국어권/영어권)

장소: 뉴튼 수도원

St.Paul's Abbey Rt 206, Newton, NJ 07860

참가비: \$275 (\$50 non-refundable deposit)

신청: www.choicenynj.com (7/7-7/27까지) 선착순 30명)

문의: choicenynj@gmail.com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주보

기부



달려야 할 길

화가는 걱정적으로 유행과 불로 멸망하는 소돔의 모습을 그립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 본 롯의 아내는 구할 수 없었습니다. 정화의 불은 이렇게 가족마저 갈라놓습니다. 반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는 많은 이들에게 박해를 받았지만 죽음에서 건져 집니다. 죄의 심판은 피할 수 없지만 의인들은 고통을 통하여 정화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리스도인은 뒤돌아보지 않고 믿음의 영도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가야 합니다.

-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 | 삼양동(선교)성당 주임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옥토

WONJO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CLEAR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색소 미백 레이저
주름 보톡스, 필러

212.697.1802

카카오톡: clearlascity1
5th Ave & 42nd St
뉴욕 도서관 앞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한국
남도 7박8일 관광

지도자, 경영인 정신이해와
문화, 역사, 건강 체험.
혼자서 체험할 수 없는 남도 여행

고향사랑 국제 연대

847)269-9422

131 E 69th St. New York 10021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Clara Clara Inc.

맨하탄 사무실이나 기타 공간이
필요하신 분 연락바랍니다.

(917) 596-1460

306 W. 37th Street

New York, NY 10018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Kwangsuk "Joseph" Kim

공인 부동산 중개사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408-220-4569

Furumoto Realty of New York City, Inc.

www.furumoto.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생명의 말씀



김현웅 바오로 신부 |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하와)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 줄 것처럼 탐스러웠습니다.”(창세 3,6) 그들은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필요’가 아니라 ‘욕심’ 때문에 열매에 손을 댔 것입니다. 다른 열매에 비해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열매’, 요즘 말로 하면 소위 ‘명품’ 열매에 대한 집착이 죄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필요’가 아닌 ‘욕심과 탐욕’으로 범하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루카 12,49-51) 신앙을 갖게 된 이유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함이라고 하거나, 각박한 세상에서 마음 기댈 곳을 찾다가 천주교를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목적이 단지 마음의 평화뿐이라면, 차라리 정신 수련하는 곳에 가서 도를

달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때때로 마음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가난함을 요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꺾어야 하는 결단도 요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열의 의미’입니다. 가족끼리 대립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떼어내지 못하고 움켜 쥐고 있는 많은 집착과 갈라섬(분열)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이 없었더라면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들인데, 신앙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오히려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거라 느끼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런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마태 10,34) 칼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평화를 위한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칼은 상대방을 향해 휘두르는 칼이 아니라, 죄의 유혹을 잘라내고자 내가 나에게 휘두르는 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화는 다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연장이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인생의 열매를 위해서도 좋은 연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칼을 주러 오셨습니다. 분열, 즉 잘라내고 갈라서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내리는 결단이며, 말씀으로 인해 겪게 되는 아픔인 칼을 주러 오셨습니다.

‘거룩한 망나니(?)’가 되어, 예수님께서 쥐여 주시는 칼로 온갖 유혹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삶의 시련과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참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모집 >

주제: "이 눈에 빛을 주소서"(시편 13,3)

- 일시: 2026년 2월 2일 ~ 13일 (11박 12일)
- 순례지: 터키(성 바오로와 초기교회 유적지)
그리스(성 바오로 선교 여정지)
- 영적 지도: 이윤희 루카 신부님
- 신청 및 문의: 마리아투어 212-594-7773
- 신청시 준비: 여권 사본, 신청비 \$1,000,
선착순 35명
- 총 비용: \$ 3,950 + 공동경비 \$ 150